

(주)GMP

써멀라미필름영업소 개설

서울 · 부산 경남 · 대구 경북 3곳

라이네이트필름 및 기계 전문업체인 (주)GMP(대표이사 김양평)가 써멀라미필름 영업소를 개소했다.

이번에 영업소를 연 곳은 서울지역, 부산 경남 지역, 대구 경북지역의 3곳으로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성, 영업망을 구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서울지역은 호림판매(주)(대표이사 이형권)로 삼영화학공업(주) 대리점이기도 하며, 부산 경남 지역은 (주)이화상사(대표이사 조창환)로 울촌화학(주), (주)효성, 한국쓰리엠(주)의 제품도 취급한다.

대구 및 경북지역 영업소인 한글사(대표 송성범)는 주로 일본 제품을 취급하는 곳이다.

지엠피가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영업소의 연락

처는 다음과 같다.

- 호림판매(주)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가 145

전화 : 02-2275-9810, 팩스 : 02-2277-7048

- (주)이화상사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50-13

전화 : 051-302-8851, 팩스 : 051-302-8854

- 한글사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244-17

전화 : 053-253-7677, 팩스 : 053-255-2453



▲ (주)GMP가 생산하는 PIONEER-11000BC



▲ (주)GMP가 생산하는 PHOTONEX UV Hot Films



▲ (주)GMP가 생산하는 SUPER TOUCH Films

(주)태신인팩
SOY INK 세미나 개최
 “無용제 Factory”실현 기대

(주)태신인팩(대표이사 서명현)은 지난 달 6일 서울 조선포텔에서 “SOY INK와 함께하는 친환경 패키징 세미나”를 개최했다.

친환경 패키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계, 언론계, 산업계를 총 망라한 많은 인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태신인팩 서명현 대표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남 다른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친환경 경영을 추구해 온 점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친환경 경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신념을 밝혔다.

이 날 세미나는 SOY INK(콩기름 잉크)를 읍 셋인쇄에 접목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포장재에 대한 친환경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SOY INK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건강증진, 건조 속도가 빨라지므로 종이 낭비 감소, 빛에 대한 내구성 향상으로 인쇄 후 색상변색 감소, 보다 밝고 선명한 색상의 구현, 종이의 재활용시 잉크 제거 난이도가 좋아지는 장점을 지닌다.

관계자는 또한 “기존 잉크에 비해 석유의존도가 훨씬 적고, 인체 유해성분인 VOC(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인, SOY INK의 사용 필요성이 널리 전파돼 국내의 모든 패키지 및 인쇄물에 SOY INK의 사용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주)태신인팩 SOY INK 세미나 개최

세미나의 초청연사로 자리한 윤호섭 교수(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는 “그동안 패키지 디자인을 고려함에 있어서 시각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에만 치중하는 학생들과 일부 디자이너들에게 환경친화적인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려왔던 사람으로서, 오늘의 세미나는 정말 만족스러운 자리였다”고 전했다.

태신인팩은 장기적으로 본사(충북 청원군 소재) 전체를 “無용제 Factory”로 바뀌어나갈 계획이며 올해부터 가능한 제품들의 인쇄방식을 모두 SOY INK를 적용한 인쇄방식으로 바뀌어나갈 예정이다.

태신인팩은 지난해 국가친환경경영대상 유공자 부문에서 서명현 사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인쇄 및 패키지 가공 업계의 대표적인 친환경 모범기업으로서 알려져 있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친환경 패키지를 인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레이새한(주)
친환경소재사업 진출
연산 5천톤 PLA 설비 건설

도레이새한(주)(대표이사 이영관)은 지난 달 28일 국내 최초로 PLA 생분해 플라스틱 전용설비를 구축해 친환경 소재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레이새한은 총 1천억원을 투자해 내년 1월 가동을 목표로 연산 5천톤 규모의 PLA 생분해 플라스틱 설비를 구미 3공장에 건설하기

로 했다.

PLA 생분해 플라스틱은 옥수수에서 추출한 전분을 발효, 중합반응시켜 만든 플라스틱으로 폐기 시 물과 탄산가스로 완전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다.

이번에 도레이새한에 생산하게 될 생분해 플라스틱 ‘에코디어’는 환경부담이 큰 식품의 포장용기, 테이크아웃 용기, 쓰레기 봉투 및 핸드폰, PC,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산업용 내외장재 등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편 도레이새한은 혁신적인 나노 얼로이(NANO ALLOY)기술을 활용해 내열성과 내충격성을 더욱 강화한 고기능,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주)효성
독 아그파포토社 자산 일부 인수
산업용 기능성 필름 및 코팅제 연구

(주)효성(대표이사 이상운)이 최근 아그파 필름으로 유명한 아그파포토社 자산일부를 인수했다.

효성은 독일 레버쿠젠에 위치하고 있는 아그파포토社(AgfaPhoto GmbH)의 자산중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기능성필름과 코팅제품에 대한 연구 및 생산설비를 인수하고 향후 관련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를 담당할 독일 현지법인(법인명 OpCo GmbH, 자본금 57억)을 신설했다.

이번 아그파포토社 자산 인수는 효성이 전사적으로 추진중인 차세대 포트폴리오 발굴 프로젝트 중 하나로 기존의 필름사업 부문과 함께 필름과 코팅 부문에서 오랜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